

한국에서 찍는 추억

(일본으로 돌아가는 날, 부산항에서 줄을 서고 있는 A와 B)

A : 호텔에 뭐 두고 온 거 없지?

B : (가방을 확인하며) 지갑 있고, 여권 있고, 핸드폰 있고... 다 챙겼어.

A : 한국에서의 3박 4일,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.

B : 그러게.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놀러 가고 싶어.

A : 나도! 아, 이제 우리 차례인가 봐. 탑승권 받으러 가자.

B : (직원에게) 안녕하세요. 하카타로 가는 배편 2명 예약했어요.

A : 여권은 여기에 있어요.

A, B : 감사합니다.

B : 나는 배 타기 전에 편의점 들어서 한국 과자 사 갈래.

A : 그럼 같이 사러 가자.

(무사히 배에 탑승한 두 사람)

B : 딱히 잠은 안 오는데, 도착할 때까지 뭐 할까?

A : 아까 사 온 과자 먹으면서 부산에서 찍은 사진 정리하자.

B : 그럴까? 이번에 신나서 사진 많이 찍었잖아.

A : 사진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깐!

B : 오! 이건 ****에서 찍은 거네. 여기 참 좋았는데.

A : ****

B : ****

A : 이제 슬슬 배가 출발하나 보다.

B :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부산에서 보는 마지막 바다인 거구나.

A : 모처럼인데,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할 사진 한 장 더 찍어볼까?

B : 그래! 내가 하나, 둘, 셋...하면 동시에 '김치'라고 말하는 거야.

A : 한국에선 사진 찍을 때 '김치'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? 좋아.

B : 그러면 찍는다. 하나, 둘, 셋...

A, B : (포즈를 잡는다) 김치~!

韓国で撮る思い出

(日本に帰る日、釜山港で並んでいるAとB)

A : ホテルに何か忘れてきた物ないよね？

B : (鞆を確認しながら) 財布あり、パスポートあり、携帯あり…全部持っている。

A : 韓国での3泊4日、あっという間だったね。

B : そうだね。韓国語を頑張って勉強してまた遊びに行きたい。

A : 私も！ あ、もう私たちの順番みたい。乗船券を取りに行こう。

B : (職員に) こんにちは。博多に行くフェリーを2名分予約しています。

A : パスポートはここにあります。

A, B :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

B : 私は船に乗る前にコンビニに寄って韓国のお菓子買おうと。

A : じゃあ、一緒に買いに行こう。

(無事に船に乗った二人)

B : 特に眠くはないけど、到着するまで何しようか？

A : さっき買ってきたお菓子を食べながら、釜山で撮った写真を整理しよう。

B : そうする？ 今回、はしゃいで写真たくさん撮ったし。

A : 写真は思い出を残すことができるとてもいい方法だから！

B : お！これは****で撮ったものだね。ここすごくよかった。

A : ****

B : ****

A : そろそろ船が出発するみたい。

B : 窓の外に見える海が釜山で見る最後の海ってことだね。

A : せっかくだし、旅行の締めくくりを飾る写真もう一枚撮ってみる？

B : そうしよう！私が一、二、三…って言ったら、同時に「キムチ」と言うの。

A : 韓国では写真を取る時「キムチ」と言うこともあるらしいね？ いいよ。

B : では撮るよ。一、二、三…

A, B : (ポーズを取る) キムチ～！